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브런치 코스 '쉐어링 플래터' 론칭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은 합리적인 가격에 품격 있는 만찬을 경험할 수 있는 브런치 코스 '쉐어링 플래터'를 론칭했다. 2인 이상 이용 가능하다. 넥스 그릴에서 브런치로 큰 인기를 끌었던 헤드 셰프의 시그니처 요리로 구성했다. 시즌 그린 샐러드, 앙송이 크림 스프, 마르게리타 피자, 해산물 스파게티, 안심 스테이크, 커피 또는 차 등 총 6개 코스다.



'화정아이파크 참사' 대국민 사과 정몽규 회장

“현산 회장직 사퇴...완전 철거·재시공도 고려”

(HDC현대산업개발)

“잇단 사고로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 피해자와 가족들께 머리숙여 사죄 사고원인 밝히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전국 건설현장 외부 안전진단 실시 구조적 결합 보증 30년까지 늘릴 것”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7일 만에 잇단 대형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다만 그룹 지주사인 HDC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며 향후 사고 수습에 대한 대주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불거진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시간 이후 HDC현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 말했다.

HDC현산이 사공을 맡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선 11일 201동 23층~38층 외벽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실종됐다 1명이 구조됐지만 사망했다. 나머지 5명 실종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재개발 철거 작업 중 건물 외벽 붕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학동4구역 시공도 맡았던 HDC현산은 잇단 대형 참사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작년 학동 참사 직후 광주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산 사옥에서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며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정 회장. 뉴스1

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정 회장은 이번에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또 한번 머리를 숙였다.

정 회장은 “HDC현산은 1976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개발로 시작해 아이파크 브랜드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2건의 사고로 인해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실망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잇단 사고로 회사 신뢰가 땅에 떨어져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다시금 고객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 HDC현산 회장으로 취임해 23년간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사고로 그러한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돼 마음이 아프다”는 소회도 토로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로 피해자와 가족

분들에게 피해 보상은 물론 입주예정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화정지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외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골조 등 구조적 안전결합에 대한 법적 보증기간이 10년이지만 새로 입주하는 주택은 물론 HDC현산이 지은 모든 주택의 골조 등 구조적 안전결합에 대해 보증기간을 30년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사과문 발표 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정 회장은 “대주주 책임은 다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지주사 회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다.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얘기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현재 사고 원인을 정부 기관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구조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이라며 “추후 사고 원인 규명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번 (HDC현산 회장) 사퇴로 책임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주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고 대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올 것이다. 원인을 찾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면서 “화정아이파크의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 계약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 후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 화정지구 아파트가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롯데호텔, 내년 미국서 ‘L7시카고’ 오픈 시카고 킴 호텔 인수...L7 스타일로 리뉴얼 예정



롯데호텔이 미국 시카고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출했다.

롯데호텔은 최근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K IND(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와 공동투자자로 미국 시카고 킴 호텔 모나코(사진)를 인수했다. 인수가는 약 430억 원이다.

롯데호텔은 이곳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L7시카고를 내년 하반기 오픈할 예정이다. 라이프스타일 호텔이 처음 탄생한 미국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롯데호텔이 L7 브랜드의 경쟁력과 가능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미국 중부 대표 도시인 시카고에 진출하면서 기존 동부의 롯데뉴욕팰리스, 서부의 롯데호텔 시애틀과 이어지는 미국 지역의 롯데호텔 라인업을 이루게 됐다.

L7시카고는 오헤오 국제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시카고 변화가에 위치했다. 13층 빌딩에 총 191실로 식음업장 1개, 연회장 3개를 보유하고 있다. 곧 L7의 스타일을 담은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고대의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주관



고려대 의과대학이 ‘2022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3년 동안 2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 전공의 연구 지원,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한다. 고려대 의대는 2019년 1단계 사업에 이어 이번에 연속 선정됐다. 이로써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이 복수로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19년 고대구로병원이 선정된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그리고 이번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까지 미래 의학연구를 주도할 라인업을 구축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양치질 자주해도 연 1회 스케일링 필수

구강 불편하면 바로 진료...스케일링, 질환 예방효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감기(급성기관지염)를 밀어내고 2019~2020년 2년 연속 외래 다빈도 상병 1위를 차지했다. 감기보다 잇몸병으로 불리는 치주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치주질환은 구강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치과 방문을 미루게 된다. 잇몸질환을 방치하면 염증이 번져서 치조골이 소실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발치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구강에 불편감을 느끼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빠뜨리는 부분 없이 꼼꼼히 닦고, 잇몸과 혀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칫솔은 어금니까지 잘 닿을 수 있도록 칫솔모가 크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치아 사이와 같이 일반 칫솔로 잘 닦여지지 않는 곳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을 이용해 반드시 닦아주도록 한다.

스케일링을 받으면 색소, 치면세균막, 치석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활짝하게 해 구취 제거와 구강질환 예방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스케일링은 재부착을 방지해 질환의 예방 효과도 크다. 만 19세 이상은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꼼꼼한 양치질,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과 함께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 심박자를 갖춘다면, 백세시대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서울대플랜트과 문형욱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최대 위기에 빠진 HDC현대산업개발, 신뢰 찾을까

연이은 대형사고, 수주 경쟁력 하락 기존 현장에서도 브랜드 교체 움직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HDC현대산업개발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정 회장은 그동안 건설업 중심 HDC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수차례 피력해왔지만, 정작 그룹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부문’에서 연이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선 정 회장이 HDC그룹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이라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 회장은 일단 지주사인 HDC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며 HDC현산 회장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굵직한 시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지역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정 회장 기자회견 직후 “정 회장은 경영 일선 ‘퇴진’까지 벌이고 있다”며 “최대 주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계기로 잃었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타워 크레인을 해제하기 위한 1200톤급 크레인 조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영향력을 행사할 정 회장의 사퇴는 면피 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연이은 두 번의 대형사고로 인해 향후 HDC현산의 수주 경쟁력 하락은 물론 기존 사공을 맡은 현장에서도 ‘브랜드 교체’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정 회장 퇴진 발표에 앞서 경기 안양시 관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경쟁에 나선 HDC현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떠나달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또 이미 HDC현산이 수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부실공사 이미지가 생긴 ‘아이파크’ 브랜드를 빼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HDC현산이 추락한 위상을 다시 회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전망이다. 정 회장이 “고객과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금 고객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편 HDC현산은 17일 주식시장에서 전 거래일(14일) 증가 1만8900원보다 0.79%(150원) 떨어진 1만8750원에 마감했다. HDC현산의 주가는 사고 소식에 반영된 12일, 전일(2만5750원)보다 19.03%(4900원) 폭락한 데 이어 13일과 14일에도 각각 1.20%(250원), 8.25%(1700원) 떨어지며 곤두박질을 쳤지만 정 회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17일에는 보험세를 유지했다. 코스피 2900선이 깨지는 등 전체적인 하락장에서 보험세를 유지한 것은 시장이 정 회장 발표의 진정성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라 평가도 나온다. 김도현 기자